

“미사여구 집착 버리고 詩心佛心 일궈가지요”

고요, 그대로의 고요

고요를 흔드는

누각(樓閣)의 종소리...

여운은 내 가슴에 와서

또 하나의 종(鐘)을 빛는다

누각을 세운다

산문박의

韓·印문화연구회장·시인 김양식씨

김양식 시인(72·韓印문화연구회장)의 눈에 비친 오대산 월정사의 새벽 산사. 코발트 빛이 물어나는 새벽 예불 종소리를 들으며 김 회장은 종소리에 침잠되기도 하고 깨침의 누각을 세우기도 한다. 이처럼 김씨의 시에는 서울의 봄은사를 비롯해 해인사, 월정사, 상원사, 선운사 등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산사의 모습과 자연에서 느낀 감흥이 담겨 있다.

현실 참여시를 주로 써 온 김양식 회장에겐 이처럼 산사를 찾아 해매는 여마의 늦바람이 분 것은 왜일까. 바로 타고르에게서 전염된 인도병(때문이다). 김 회장은 아홉살 때 처음으로 인도예기를 듣고 매혹됐다. 당시 문학 소년이었던 오빠가 건네준 타고르 시집 <초승달>을 읽고 시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동경이 일기 시작했다. 이런 김 회장에겐 있어 인도는 언젠가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모상의 대지였다. 그러나 기회는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찾아왔다. 1975년 인도 마드라스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인대회'에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것. 설렘과 기대를 안고 도착한 김 회장의 눈에 비친 인도는 타고르의 시를 통해 본 모습 그대로였다. 김 회장은 인도에서 "여기가 바로 진정한 인간이 사는 곳이다. 사람이 본래 가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인간 냄새가 나는 인도의 무한한 에너지와 인도땅이 내뿜는 열기를 맨살로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나니 종교와 삶이 하나가 돼 무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며 '사람들은 왜 재물을 모으려고 인간됨을 버려', '시를 쓴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확 밀려오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 보게 됐습니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털어놨다.

인도에서 안고 온 충격의 실타래를 금방 풀고 싶었을까. 귀국하자마자 김 회장은 45세의 늦각이로 동국대 대학원 인도문화학과에 입학했다.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공부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의 불교에 대해 폭넓은 회두를 하나씩 글로 펼쳐보이기 시작했다. 또 학교 졸업 후인 81년에는 한·인 문화연구회를 창설해 한국속에서 인도 문화를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23일에는 인도정부로부터 시인상인 '파드마 슈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파드마 슈리상'은



인도정부가 인도 문화의 전파 및 인도를 위한 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한 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1967년에는故 마더테레사 수녀가 받기도 한 권위있는 상이다. 김 회장이 인도를 알리는 데는 역시 그동안 펴낸 책들이 한몫했다. 시집을 비롯해 인도 기행문 <간지즈 강을 따라> 등 수필집과 <타고르의 생애와 사상>, <기탄자리> 등 번역서, 번역시집 등을 합해 매년 30여권의 책중에는 타고르와 인도관련 글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김 회장은 50여년의 문학여정을 결산하는 시집 <석양이 눈부시어> 상·하권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담은 글모음집 <만남의 향기>를 최근 펴냈다.

타고르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인

계절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 입는 자연의 모습을 세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는 김 회장은 "편을 쥐고 있는 내 마음이 시어들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한낱 의미없는 문자에 불과하지요. 한글자 한글자 걸으며 드러난 미사여구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심을 그대로 원고지 위에



△한국과 인도 문화교류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 3월 23일 나라이안 인도 대통령령으로부터 '파드마 슈리상'을 받고 있는 김양식 회장

각지의 산사를 두루 돌아다닌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풍부한 임상경험(간을 바탕으로 20여년간 한·인 문화연구회를 이끌어 오면서 해마다 강연회를 열어왔다.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의 석학이나 문화인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좌담회도 가졌다. 또 90년에는 조계사 문화대학에서 '타고르 작품에 나타난 우파니샤드와 불교'를 주제로 3개월간 강의하기도 했다. 집안이 3대에 성공회 신자였다고 소개하는 김 회장은 "대부분 내 나이 또래 불자들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사찰에 나가기 시작한 모태 신앙자들이 대부분이다"며 "하지만 나는 부처님을 위대한 철학자라고 칭송하며 존경해 온 타고르의 시에 끌려 불교를 공부하고 사숙하게 됐다"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그래서 김 회장은 기회가 닿는다면 사찰을 돌아다니며 타고르와 자신의 시를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강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찰과 자연, 불교사상 등을 소재로 한 시심불심(詩心佛心)을 독자들에게 펼쳐 '마음 찾기'에도 한몫 거들겠다는 의욕도 내비쳤다. 우선 내년에는 동시대 존재했던 인도의 우리나와 가야국의 연관성을 철저히 연구해 가야국 황후였던 허황후를 소재로 한 장편서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타고르와 인도라는 회두를 탐구한지 30여년, 고회를 넘은 김양식 회장의 눈은 비록 침침해졌지만 심안(心眼)은 더욱더 빛나는 듯 보였다.

글=김주원 기자 jim@buddhaa.com
사진=고영배 기자 yoo@buddhaa.com

인도인 무욕의 삶에 강렬한 충격

81년 韓·印문화연구회 창설 인도알리기 주력

'타고르와 인도' 화두로 30년, 30여권 책 펴내

도의 고전 우파니샤드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충격을 차지한다. "부처님은 우주 전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본래 마음, 청정하고 삼독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찾는 일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자신을 돌아보는데 자연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울겨 놓을 때 좋은 시가 나옵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김 회장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기 보다는 인도는 물론, 산사나 그림 등 다양한 소재를 보고 떠오르는 감흥을 곧바로 시로 쓴 즉흥시가 많다. 인도를 13번이나 다녀오고, 전국

취재수첩

인도정부서 '파드마 슈리상' 받아...24일 자축연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나 54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양식 시인은 69년 월간문학지 '제1회 신인상 시부문'에 당선되면서 그 미당 서정주 시인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이어 70년 제1시집 <정음후사>를 출간 한데 이어 <초이시집>('74), <소고양이 한 마리>('80), <새들의 해돋이>('84), <서로동 참새>('90), 장편서사시 <은장도어>('99) 등 8개의 시집을 펴냈다. 또 수필집으로는 <세계 시인과의 만남>('78), <간지즈 강을 따라>('90),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2000) 등이 있다.

인도 관련 번역서도 많이 출간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R.타고르 <초승달>('91)을 비롯해 <나는 바다가 되리라>('95), K.크리팔라니 <타고르의 생애와 사상>('96), D.라메시 <새들의 길>('97), <기탄자리>(<현대인도문학>('99) 등이 있다. 이외에도 김양식 시인은 자신의 시(詩)를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한 개인번역 시집을 펴내기도 했다. 김양식 시인은 24일 오후 5시 조선호텔 2층 오키드롬에서 '출판기념회 겸 파드마 슈리상' 수상 기념 자축연을 연다.



△미사여구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심을 그대로 원고지 위에 옮겨 놓을 때 좋은 시가 나온다는 김양식시인이 작시(作詩) 삼매경에 빠져있다.



△60여년의 문학여정에서 출간된 시집, 수필집, 번역서만도 30여권이 넘는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심(三正心)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나 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사들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임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심(三正心)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인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국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심인병으로 물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심(三正心)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령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토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배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